

# ‘디지털 혁신 순항’ 삼성생명, 3분기 누적순익 30% 껑충

3분기 누적순익 1조2938억  
재무건전성, 업계 최고 수준  
진단서비스 등 디지털 혁신

삼성생명이 올 한 해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과 계약 포트폴리오까지 거둬들이며 오는 4분기까지 호실적을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삼성생명은 올 1~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2938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9951억원에서 30%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연결 이익으로 이차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누적 신계약 가치도 1조 2378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7% 증가했다. 이는 올해 금리상승



삼성생명 비대면화상상담서비스 이미지.

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의 올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13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3% 줄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보다 무려 256.2% 오른 1조3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에 들어서며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 대비 93.9%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삼성생명은 먼저 디지털 혁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혁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면 영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면서다.

지난 11월 삼성생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완료되는 모바일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5분 이

내에 보험 가입자가 완료되는 디지털 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네이버클라우드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보험업계 최초로 비대면화 상상답 서비스도 개시하며 디지털 혁신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컨설턴트 간 대면 부담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고도 ▲보장분석 ▲니즈환기 ▲상품설명서 등 고객의 보장설계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은행은 웃고 고객은 울고

### 3개월 연속 예대금리차 ↑

은행 대출금리 최대 연 6% 육박  
정기적금 금리 0.21%p 올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대 연 6%에 육박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 수준에 머무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8월에 연 3.07~5.92%에서 9월 연 3.21~6.68%로 올랐다. 금리 상단만을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76%p(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 8월 연 2.6~3.29%에서 9월 2.74~3.59%로 올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만 놓고 봤을 때는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 주담대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고정금리)는 3.97~5.37%로 상단이 5%를 훌쩍 넘는다.

대출금리는 무섭게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정체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1년·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지난 8월 연 1.16%에서 9월 연 1.31%

로 0.15%p 오르는데 그쳤다. 정기적금금리는 1.15%에서 1.36%로 0.21%p 올랐다. 한 달 사이 0.76%p가 오른 대출금리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상승 속도에 차이가 나다 보니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2.11%p, 8월에는 2.12%p, 9월에는 2.14%p로 매월 1~2bp(국제금융시장 금리 수익률)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2%p를 기록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이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대마진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다”며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예대금리차가 높아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NH농협60주년**  
금융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투자가 처음이야?**

**투자문화로 와!**

**투자가 쉬워지는 브랜드 플랫폼**

**NH투자증권 모델 오마이걸**

**투자가 문화로 길안내**

- 이색 투자 쇼핑 체험 공간 슈퍼스타트마켓에서 주식을 쇼핑처럼 쉽게!
-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문화살롱에서 다양한 투자법을 즐겁게!
- 내 투자성향 MBTI는? 솔루션 센터에서 나만의 투자법으로 신나게!
- 나의 투자 능력 레벨은? 게임랜드에서 복잡한 투자를 재밌게!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947호(2021-08-18~2022-08-17)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약 0.084%~0.499% (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체결별 상이). 비대면계좌 0.01%(모바일증권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경품 당첨자 부담이며 경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자원금 당첨자(경우 제세공과금(22%)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첨자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거나,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경품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빌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 불가 하실 수 없습니다.

## NH농협銀, 농업인의 날 맞아 줌줌이벤트

최대 500포인트 제공

NH농협은행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개최한다.

NH농협은행은 누구나 쉽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 NH포인트 줌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NH멤버스 회원이 대상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NH멤버스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

후 NH멤버스 상품몰에 등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터치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건당 10포인트씩 최대 500포인트를 5만명에게 각각 제공한다.

김종권 NH멤버스사업부장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NH멤버스 회원들에게 소소한 재미는 물론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소완 기자 think@